

일본 농촌 과소화 정책 사례 조사 출장보고서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제1장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일본 총무성의 정책 내용과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간주체의 역할 등에 대한 조사
 - 일본에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금융·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과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뤄지고 있음. 과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이 폭넓게 실시됨. 산업 정책, 생활 환경 정비, 복지 정책, 교육 진흥 정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됨.
 - 부처의 고유한 업무에 따라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내용의 차이를 보임. 총무성은 인구 과소 지역에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 진흥, 정주여건 확보, 귀농·귀촌 촉진도시주민과 지역 주민 간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 외부의 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지역에 대한 교부금 지원과 분야별 사업 예산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농촌정책 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역할 분담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성, 내각관방 등 낙후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중앙부처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사업 간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협력·조정 방안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농촌 정책 추진과정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지역 및 마을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운영 사례 조사
 - 일본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마을, 지자체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각 부처의 지역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를 구축하여 지자체 및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
 - 지자체에서 지역 정책을 수립 시에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사업의 사후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지자체별 데이터 수집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 내고장알리미(LAIS) 등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데이터를 총망라한 시스템은 아직 없음. 또한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면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지역 범위가 시·군·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일본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시스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 지자체의 농촌 과소화 대책 및 농촌 활성화 정책 사례 조사
 - 일본의 지자체에서는 중앙부처의 과소화 정책 및 사업에 대응하여 각 지역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일본 농촌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 및 사업 추진 체계를 살펴보고,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농촌 과소화 정책의 지역 추진체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함.
 - 도·농 교류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도시 지역 내 안테나 샵 등을 개설하여, 지역 특산물 및 6차산업화 관련 제품의 판매를 비롯한 도·농 교류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사하고자 함.
 - 일본의 경우 비영리 단체(NPO)가 지역에서 농업·농촌 관련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및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사하고자 함.
- 농촌 지역의 지역부흥협력대 사례 조사
 - 총무성의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은 대원들의 출신배경 및 역량, 그리고 지역의 자원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나타남.
 - 중앙정부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부흥협력대원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 정책, 사업을 운영·관리 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청년의 이주를 통한 농촌 활성화 목적의 유사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지역 부흥협력대원들이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원들의 활동이 지자체의 기존 사업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를 파악한 자료는 부족함. 또한 총무성의 사업 지원 종료 후에 협력대원들이 어떠한 과정과 요인에 의해 지역에 정착하는 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함.
 - 실제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협력대원과 지역에서의 활동 내역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함.

2. 출장자, 출장기간 및 출장지

소속	출장자	직급	출장기간	출장지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정도채	부연구위원	11월 27일(월)~12월 1일(금) (4박 5일)	일본 (도쿄, 이바라키현)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지역경제팀	임지은	전문연구원		

3. 주요 조사 내용

- 일본 총무성 과소화 대책실
 - 면담자: 과소화 대책 담당자(이토 류지)
 - 조사 내용: 총무성 과소화 시책 내용과 주요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 분담, 정책 효과 평가 방법(지표 등)
- 내각관방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본부 방
 - 면담자: RESAS 시스템 담당자(고하타 타카이치)
 - 조사 내용: RESAS 시스템 운영 체계, 데이터 제공 구조와 범위,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부처별 업무 협조 사항, 지자체 활용을 위한 지원 사항 등
-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 저출산·인구 감소 대책과
 - 면담자: 히타치오타시 과소화 정책 담당자(구로하)
 - 조사 내용: 시 과소화 정책, 사업 내용, 중앙부처, 이바라키현과의 정책 추진 체계, 지자체의 연관 사업과의 연계, 주민 및 지역 내 NPO와의 협력 방안, 지역부흥협력대 운영 내용 등
- 지역부흥협력대원 활동 조직 방문
 - 면담자: 이바라키현 지역부흥협력대 활동 대원
 - 조사 내용: 활동 내용 및 향후 계획, 지역 주민과의 활동 경험, 지역의 변화 체감

4. 출장 일정

일자	지역	시간	방문기관
11월 27일(월)	나주→인천 →하네다	-	이동
11월 28일(화)	도쿄	14:00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본부
11월 29일(수)	도쿄	10:00	총무성 과소화 대책실
		14:00	구마모토현 안테나숍, 나가노현 안테나숍, 군마현 안테나숍, 이와테현 안테나숍
11월 30일(목)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	09:00~11:30	이동 (도쿄→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
		13:00~16:30	히타치오타 시 저출산·인구 감소 대책과 이바라키현 지역부흥협력대 활동 대원
		18:00~21:00	이동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도쿄)
12월 1일(금)	하네다→김포→나주	-	이동

* 일부 일정은 방문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되었음.

5. 면담자

- 내무부 내각관방
 - 쿠스다 마사유키(楠田 眞之) masayuki.kusuda.k4a@cas.go.jp
 - 코하타 타카이치(木幡 飛一) takaichi.kohata.f7r@cas.go.jp
- 총무성
 - 사토 시게루(佐藤 茂) s6.satou@soumu.go.jp
 - 오바타 요스케(小幡 陽介) 72.obata@soumu.go.jp
 - 이토 류지(伊藤 龍二)
-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
 - 후쿠다 히로아키(福田 洋昭) h.fukuda@city.hitachiota.lg.jp
 - 타나베 히로아키(田辺 宏明)
 - 이케다 세이이치(池田 誠一) kikaku3@city.hitachiota.lg.jp
 - 쿠로하 사토시(黒羽 賢)
 - 지역부흥협력대원 5명(타케무라①, 타케무라②, 호리구치, 츠카다, 타케이)

* 성이 같음.

제2장 출장 결과

1. 총무성 과소화 대책

* 수집자료: 총무성 과소 대책 설명 자료

* 총무성에서 과소 대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설명된 자료임.

1.1. 과소화 대책 추진 배경

- 일본은 2006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음.
- 현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한 명당 출생자 수가 2명은 되어야 하나, 2016년 기준으로 1.44명이었음.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음.
- 연령대별 인구 분포 또한 고령자가 늘고 있어, 201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3.0%, 2060년에는 39.9%로 예상되며, 청년층(15~64세) 인구는 2010년 63.8%에서 2060년 50.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인구 50%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인구 증가 예상지역은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이며 그 외 지역은 인구 감소가 예상됨.
- 지방과 도시의 인구를 보면, 도쿄, 오사카, 나고야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그 외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총무성은 과소 대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고 재정을 지원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함. 과소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실태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과제에 대해 정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임.
 - 다른 정부부처,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은 국토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관련 대책을 마련함.
- 과소 대책은 주로 농촌지역이 대상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업도 관여하며, 교통 부분도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성도 관여함. 따라서 총무성뿐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이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중복되지 않게 연락을 긴밀하게 취함.
 - 농림수산업과도 전화로 정보를 교환하되 별도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지는

않음.

1.2.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이하 과소법)

-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가 현격한 지역을 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과소법」을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음.

과소 지역의 현황

	과소 관계 시정촌	전국	과소 지역의 비율
관계 시정촌 수(2017. 4. 1)	817	1,718	47.6%
인구 (2015년, 단위 만명)	1,088	12,709	8.6%
면적 (2015년, 단위 km)	225,468	377,971	59.7%

자료: 수집자료 10쪽

- 과소법 제1조에 과소법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과소지역도 정의하고 있음.
 - 과소지역: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 기능, 생활환경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과소법)

제 1 조 이 법은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 기능 및 생활 환경의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해당 지역의 자립 촉진을 도모하고, 주민 복지의 향상, 고용 증대, 지역 격차의 시정 및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수집자료 10쪽

-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대책의 목표

- ① 산업 기반의 정비, 농림어업 경영의 근대화, 중소기업 육성, 기업의 도입 및 창업 촉진, 관광 개발 등을 통해 산업을 일으키고 안정적인 고용을 증대
- ② 교통 시설, 통신 시설 등의 정비를 도모하는 등 교통·통신을 확보함과 동시에 과소 지역의 정보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교류를 촉진
- ③ 생활 환경의 정비, 고령자 등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 및 증진, 의료 보장 및 교육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
- ④ 아름다운 경관의 정비, 지역 문화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개성 넘치는 지역 사회를 형성

- ⑤ 기간 집락의 정비, 적정 규모 집락의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재구성을 촉진

- 과소지역 판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먼저 5년에 한 번씩 하는 국세조사를 통해서 인구감소가 현저한 지역, 그리고 재정력이 낮은 지역을 봄. 과소지역으로 지정된 시정촌은 817개입(2017년 4월 1일 기준). 이는 전체 시정촌 1,718개 가운데 47.6%에 달하는 것임.

<참고> 과소지역 판정 기준

- 기본 발상은 “인구 감소의 평균치를 웃도는 인구감소치에 대한 대책”임. 또 하나의 발상은 인구 감소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고령자 비율이 현격하게 높거나 청년자 비율이 현격하게 낮은 지역을 지원하자는 것임.
- 최근 법률 요건에서 제시된 조건 중 하나를 보면, 45년 간 인구감소율이 32% 이상일 것임. 또는 45년 간 인구 감소율이 27% 이상인 동시에 고령자 비율이 36% 이상이거나 청년 비율이 11% 이하인 경우임. 또한 ‘중기요건’도 있는데, 장기요건과 중기요건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과소지역으로 판정됨.

구분		H29 법 개정시 요건
인구요건	장기요건	45년간(S45~H27) 인구 감소율 32% 이상 또는 45년간(S45~H27) 인구 감소율 27% 이상이고, [H27 노인 비율 36% 이상 또는 H12의 청년층 비율 11% 이하]
	중기요건	25년(H2~H27) 인구 감소율 21% 이상
재정력요건	재정력지수	0.5 이하 (H25~H27의 3개년 평균)
	공영 경기 수익	40 억엔 이하

* 인구 요건은 장기 요건 또는 중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재정력 요건은 재정력지수 및 공영 경기 수익 모두에 해당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는 65세 이상, 청소년은 15~29세

- ‘인구요건’ 중 ‘장기요건’의 경우 최근 1-2년의 인구 감소 추이가 아니라 25년-45년 긴 스팩의 인구 감소 추이를 봄.
 - 인구 감소 추이 타임스팬을 45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과소 문제가 발생한 1960년대 이후부터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 당시는 고도 경제 성장기

로 도시에 단순노동자가 많이 필요했고 지역에서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며 지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음. 이밖에도 여러 근거가 있음.
- 또한 타임스펜을 25년으로 설정한 것은 최근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

1.3. 국가의 과소지역에 대한 정책

□ 과소대책사업체

- 과소대책사업체는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해제이 12년 법률 제15호)에 의해 과소 지역에 지정된 시정촌이 과소지역자립촉진시정촌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특별히 발행이 인정된 지방채임.
 - 지방채 계획금액: 2017년 4,500억엔(전년도(당초) 300억엔, 7.1%증가)
2016년 4,200억엔(당초), 4,409억엔(개정 후)
- 일본 시정촌에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과소지역 지정 지자체는 재정을 빌릴 때도 우대를 받고, 상환 시에도 보류를 받는 혜택을 받게 됨.
 - 과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우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채무 상환 시에도 70%를 국가 차원에서 보류해 줌.
 - * 지방채를 통한 재원은 지역 예산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원임.
- 지자체가 재정을 통해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음. 도로, 통신시설 보급이 낙후된 지역에서 관련 시설을 짓는 데 혜택을 줌. 또한 시설을 짓는 것 외에도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의사 월급을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음.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자료 13쪽에 제시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음.

과소대책사업체 대상 사업

산업진흥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산업, 관광, 휴양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촌도 및 시정촌이 관리하는 도도부현도 및 농도, 산길·여항 시설·항만 시설 ○ 지역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시설 ○ 중소기업의 육성이나 기업의 도입이나 기업의 홍보를 위해 시정촌이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에 사용하기위한 공장 및 사무실 ○ 관광, 휴양 관련 시설 ○ 농림 어업의 경영 현대화 시설 ○ 상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 이용 시설 	후생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 처리 시설 ○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 ○ 화장터 ○ 소방 시설 ○ 노인 보건 또는 복지의 향상 또는 증진을 도모하기위한 시설 ○ 장애인 또는 장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위한 시설 ○ 보육, 아동관 ○ 인정 어린이 원 ○ 시정촌 보건 센터 및 모자 건강 종합 지원 센터 ○ 진료 시설 ○ 간이 수도 시설
교통통신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촌도 및 시정촌이 관리하는 도도부현도·교량 ○ 농림 길 ○ 전기 통신 관련 시설 ○ 교통편에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나룻배 시설 ○ 주민의 교통 수단의 확보 또는 지역간 교류를위한 철도 시설 및 철도 차량 및 궤도 시설 및 철도 차량 ○ 제설 기계 	교육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의무 교육 학교 및 시정촌립의 유치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및 특별 지원 학교 ○ 공공 습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의무 교육 학교 또는 시정촌립의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또는 특별 지원 학교의 학교 급식 시설·설비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짚음하고 내용은· 의무 교육 학교 또는 시정촌립의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짚음하고 내용은 특별 지원 학교의 교직원 주택 ○ 시정촌립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 ○ 도서관 ○ 공민관 기타 집회 시설 ○ 지역 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기위한 시설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사업 (이른바 소프트 대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기위한 시설 ○ 취락 재편 정비 <p>○ 지역 의료의 확보,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위한 교통 수단의 확보, 마을의 유지 및 활성화, 기타 주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지방채를 재원으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금의 적립을 포함)</p> <p>[구체적인 사업 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의료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확보 사업(진료소 개설 비용 보조),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 ② 생활 교통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버스·디맨드 택시 등의 운행, 버스 노선 유지를 위한 민간 버스 사업자에 대한 보조 ③ 마을의 유지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락 점검이나 취락 과제 토론의 실시, 주민에 의한 활동 지원, 이주·교류 사업(인터넷 홍보나 빈집뱅크 등), 기타 고령자 지원, 육아 지원 교육, 전통 문화 진흥, 자연 에너지 관계, 방재 대책 등 ④ 산업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담당자·인재 육성 대책, 6차 산업화, 기업 유치·고용 대책(커뮤니티 비즈니스 기업 등) 		

자료: 수집자료 13~14쪽

주: 밑줄은 해제이 29년(2017년) 4 월 1 일부터 추가

- 과거 지방채권 발행과 재정위기로 인해 과거에 실제로 재정 파탄을 겪은 지자체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도도부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연도 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지자체는 거의 없음.

□ **교부금 지원**

- 국가 차원에서 과소지역에 교부금을 지원함

과소지역 교부금

과소지역등자립활성화추진 교부금	2017년 예산 6.9억엔
- 과소지역 등 집락 네트워크권 형성 지원 사업	- 4.0억엔
- 과소지역 등 자립 활성화 추진 사업	- 1.4억엔
- 과소지역 집락 재편 정비 사업	- 0.9억엔
- 과소지역 유희 시설 재정비 사업	- 0.6억엔

자료: 수령자료 17~20쪽

- 과소지역 등 집락 네트워크권 형성 지원 사업 교부금
 -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 전략: 「작은 거점」의 형성 관련 사업
 - 마을의 유지·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핵심 취락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마을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는 「집락 네트워크 권」(「작은 거점」)에서 주민의 생활을 지탱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생업을 계승·창출하는 활동의 육성을 지원
 - * 사업 실시 주체: 취락 네트워크 지역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조직(지역 운영 조직), 교부금 신청은 시정촌이 실시
 - * 교부액: 사업당 2,000만엔 이내
 - * 2017년 예산 누적 금액 400,000천엔
 - * 대상 사업: 취락 네트워크 권의 형성에 관한 시책 및 활성화 계획에 기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과소지역 등 자립 활성화 추진 사업 교부금
 - 과소 지역 시정촌 등을 대상으로 과소 지역의 산업 진흥, 생활의 안심·안전 확보 대책과 정주 촉진 대책 등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
 - * 사업 주체: 과소 지역 시정촌 등
 - * 교부액: 사업당 1,000만엔 이내
 - * 2017년 예산 누적 금액: 140,000 천엔

- * 대상 사업
 - ① 산업 진흥
 - ② 생활의 안심·안전 확보 대책
 - ③ 마을의 유지·활성화 대책
 - ④ 이주·교류·젊은이의 정주 촉진 대책
 - ⑤ 지역 문화 전승 대책
 - ⑥ 환경 공헌 시책의 추진

○ 과소지역 집락 재편 정비 사업 교부금

- 과소 시정촌 등을 대상으로 과소 지역의 취락 재편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원.

- * 사업의 종류
 - ① 정주 촉진 단지 정비 사업: 과소 지역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 취락 등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
 - ② 정주 촉진 빈집 활용 사업: 과소 지역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적인 마을 곳곳에 빈집을 활용하여 주택을 정비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
 - ③ 취락 등 이전 사업: 기초적인 조건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집락 또는 고립되어 있는 주택을 핵심 집락 등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비용에 대한 보조
 - ④ 계절 거주 단지 정비 사업: 점차적인 집락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 조건이 나쁘고, 공공 지원 서비스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겨울철 등 계절 거주를 목적으로 단지를 형성하는 경비에 대해 보조

* 사업 주체: 과소 지역 시정촌

* 교부율: 1/2 이내

* 2017년 예산 누적 금액 89,652 천엔

○ 과소지역 유희 시설 재정비 사업 교부금

- 과소 시정촌 등을 대상으로 과소 지역의 유희 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간 교류 및 지역 진흥을 도모 활동을 지원

* 생산 가공 시설, 자료 전시 시설, 교육 문화 시설, 지역 예능·문화 체험 시설 등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보조를 실시

* 사업 주체: 과소 지역 시정촌 등

* 교부율: 1/3 이내

* 2017년 예산 누적 금액 60,000 천엔

□ **작은거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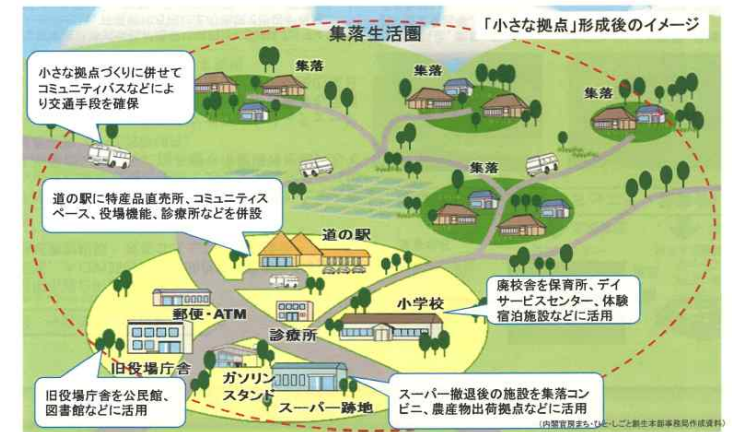
- 작은 거점은 시설이 여러 마을이 산재하는 지역(마을 생활권)에서, 상점, 병원 등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기능과 지역 활동 장소를 집약·확보하고 주변

마을과 커뮤니티 버스 등의 교통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는 기회가 있는 집락의 재생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

- 지자체보다 한 단계 낮은 '집락'을 단위로 하여,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곤란한 집락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주고 있음.
- 일본의 집단 조사(조사 대상: 지자체 직원) 결과, 전국에 75,622개의 집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조사에서는 90% 정도가 소속 집락이 당분간 존속될 것이라고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대비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음.
 -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감소한 집락이 81%였음.
 - 향후 없어질지도 모르는 집락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았는데, 총무성의 예상과 달리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87.2%였으며, “조만 간 없어질 것 같다” 4.0%, “10년 내 소멸할 것 같다”가 0.8%였음.
 - * 해당 조사는 올해 1월에 처음 실시
- 지자체 직원이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빈집 증가”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작 포기지 증가”, “일자리 감소”, “장보거나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슈퍼마켓 부족” 순이었음. 이 자료를 통해 과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중 한 가지가 “작은거점”임.
 - 작은거점: 그림의 노란색 부분처럼 주변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집락을 설정해 두고 관청, 학교, 병원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과소지역: 노란색 외 부분에 있는 집락은 불편을 겪는 지역임. 이런 지역에서 교통(버스 등)을 연결해서 중심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주민 생활을 편하게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음.
 - *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과 같이 사업자를 통해서 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제한이 있음. 그러나 과소지역은 수익이 나지 않아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동일한 문제가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활동할 수 있게 특별히 허가를 내주어 활동하고 있음. 일반인의 경우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성에 등록해야 하는데, 승객에게 요금을 받지 않으면 법적 제한을 전혀 받지 않음. 따라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가능함.

<작은 거점 형성 후의 이미지>



- 커뮤니티 버스 등에 의해 교통 수단을 확보
- 미치노에키(휴게소)에 특산물 직매소, 커뮤니티 공간, 동사무소 기능, 진료소 등을 병설
- 구 동사무소 청사를 도서관 등으로 활용
- 폐교를 보육 서비스센터, 체험 숙박 시설 등에 활용
- 슈퍼 철수 후 시설을 농산물 출하 거점 등에 활용

자료: 수령자료 24쪽

[사례] 시마네현 사례

- 이 지역은 특히 인구 감소가 현저한 지역이었음. 장을 보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마을 차원에서 공공시설(폐교 개조)을 활용해서 쇼핑할 수 있는 상점을 만들었음. 또한 주변 집락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함.

자료: 수령자료 25쪽

□ 집락지원인(집락지원원, 집락대원)

- 집락마다 고령자가 많아서 외출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각 집락의 상황을 관공서에 보고하는 대원을 배치함.
- 집락지원원이 고령자에 대한 정부 보호뿐 아니라 지역활성화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채용을 늘리고 지원하고 있음.
- 집락지원인(집락대원) 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음. 2016년 전임 대원은

1,158명이었고, 자치 회장 등을 겸임한 경우는 3,276명이었음. 제도 도입 시보다는 확실히 증가한 수치이나 최근 몇 년 간 증가율은 보험세를 나타냄.

- 집락지원인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한 명당 연간 350만엔까지 지자체에 지원(매년 갱신하여 지원)하며 이후 추가 부담 비용은 지자체가 결정함.
 - 전임으로 활동할 경우의 상한액이 연간 350만엔이며, 다른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은 40만엔까지 지급
 - * 현재까지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없었고 오히려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락지원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자체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임.
 - 집락지원인은 공무원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형식으로 활동함. 채용은 지자체가 전적으로 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은 (청년이라기보다는) 주로 현지의 활동가임. 가령 현지 자치회 대표라든지 지역 유지라든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장년층이 많음.

□ 지역부흥협력대 제도

- 지역부흥협력대 제도는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지방으로 가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 지자체가 도시에 사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도시 출신의 청년에 한정하며, 해당 지역 청년은 채용할 수 없음.
 - 나이제한은 없고, 실제로 활동하는 대원 중 50대도 있음.
 - 대원은 활동기간은 대체로 1년 이상 3년 이하임.
 - 2016년 기준 전국에서 활동한 대원 수가 4,158명이며, 이것은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임. 당초 예상한 것보다 대원 수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음.
- 지역부흥협력대 실시 지자체에 지역부흥협력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역부흥협력대원 등의 창업에 필요한 경비, 지역부흥협력대원 모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특별교부세 조치),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지역부흥협력대 연수 등의 경비를 지원함(보통교부세 조치).
- 지역부흥협력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원금 상한액이 400만엔임. 보상비(인건비 조)는 200만엔이 상한이고, 나머지 200만엔은 활동비 상한액임.
 - 보상비 상한액의 경우 2015년부터 협력대원의 스킬이나 지리적 조건 등을 고

- 려하여 250만엔까지 탄력적으로 지급 가능함.
- 활동비에는 여비, 작업도구 등 소모품비, 관계자 간 조정 등에 소요되는 사무적인 경비, 정착을 위한 연수비용 등이 포함됨.
 - * 재정지원의 경우 인당 상한액만 설정되어 있고 지자체 상한액은 없음.
- 지역부흥협력대원 등의 창업에 필요한 경비는 최종 연차 또는 임기 종료 다음해 창업하는 사람 1인당 100만엔 상한임.
- 지역부흥협력대원 모집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한 단체당 200만엔 상한임.
- 과소 대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 단위는 시정촌이 대부분이며, 지역부흥협력대의 경우에도 채용, 활동 관리는 대부분 시정촌이 맡고 있음.
 - 도도부현은 시정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백업, 지원하거나 대원을 상담하거나 연수회를 개최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총무성 차원에서 대원 채용·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두고 있지 않으며,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사업 실시함.
- 도시 청년이 활동을 마치고도 60%가 지역에 남아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 3년간의 활동 종료 후 정착 시 개인사업(창업)을 하는 경우가 약 30%임.
 - 취업(관청이나 지역 회사)이 47%, 농업 종사 14% 등임.
- 재정지원 외에 대원이 지역에 융화될 수 있도록 총무성 차원에서 연수회를 개최하고, 도도부현 차원에서는 연수회를 개최할 때 조언도 하고 재정지원도 함. 또한 대원들과 직접 상담 창구가 될 수 있는 핫라인을 갖추고 있음.
 - 핫라인은 대원 출신자에게 위탁해서 핫라인(상담 창구)을 운영함.
 - 처음에는 총무성이 재정지원만을 위주로 하였으나, 점차 대원이 증가하면서 문제점과 과제가 많아졌고 총무성에서도 자체적으로 반성한 결과임.
- 전국의 대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지역부흥협력대 전국 서밋) 채용 제도 설명도 실시함.
- 연수회의 경우 활동을 시작하러 가는 대원들에 대한 연수, 스텝워크 활동 중인 대원에 대한 연수, 대원을 받아들이는 지방 공공단체 직원 대상 연수를 진행함. 또한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진행함.
 - 활동 중인 대원을 모아서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보도록 함.
 - * 지역부흥협력대원이 지역에 정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 적이 있었지만 지금 실제 활용되는지는 확실치 않음.

-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정착률은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잘 융화되어 활동하는지에 달려 있음.
 - 간혹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취지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관청에서 잡일만 하게 되거나, 지역 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있음. 이런 경우 지역에 애착심을 갖지 못하고 포기함.
- 총무성은 2016년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지역에 가소 살고 싶은지를 물었음. 30.6%가 과소지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그 이유는 ① 기후와 자연환경이 좋아서, ②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등이었음. 이 조사를 통해 잠재적으로 과소지역에 이주하여 살고 싶은 도시민이 적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촉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 (참고) 경관 관련 정책사업의 경우 농촌·산촌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 총무성보다는 농림수산성이나 환경성에서 보존 대책을 세움.

2. 내각관방 RESAS(Regional Economy Society Analyzing System)

※ 수집자료: RESAS 시스템 최신정보

2.1. RESAS 구축 목적

- RESAS 인터넷 페이지 접속 주소: <https://resas.go.jp/#/13/13101>
- RESAS(이하 리사스)의 목적은 각 지역이 자신의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제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후원하는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임.
 - 정부 여러 기관의 통계를 종합해서 데이터를 모아 두었음.
- 그렇기에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도록 함.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된 고객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 공공단체, 지자체, 일반 국민이 활용하기 쉽도록 고민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리사스의 장점은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보기 편한 것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임.

2.2. RESAS 제공 통계 메뉴

- 자료 26쪽부터 리사스의 데이터 예시로 여러 그래프나 표가 제시되어 있음.
 - 인구메뉴: 도쿄도의 인구 변화, 인구의 사회적 증감, 지방에서 특정지역으로 이동한 인구 등, 연령대별 주소 이전 인구 등이 제시됨.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자료의 출처도 나와 있음. 인구 통계의 경우 주민기본대장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 산업구조 맵: 산업구조, 업종별 회사 수, 업종별 매출액, 지역별 주요 매출 업종, 특화계수(다른 지자체와 가장 다른 점을 수치화한 그래프)
 - * 지자체 통계도 일부 수록됨. “현민경제계산”은 시도부현별 GDP 통계로, 리사스 시스템에서 활용됨. 이런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시도부현별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가운데 어느 산업에 강점을 두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통계를 만들음.
 - 관광산업: 관광 목적지 분석 등
 - * 관광산업 관련 자료의 기초 자료는 민간 주식회사(Navitime Japan)의 자료임. 이 회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도 검색이나 경로 검색하는 어플을 제공하는 곳이며, 이 데이터를 활용함.

- * 이동통신사(NTT DOCOMO)에서 구입한 데이터도 활용함. 예) 오키나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간 곳은 어디인지 등
- * 신용카드 회사(VISA)에서 구입한 데이터도 활용함. 예) 타이완, 중국 사람 순으로 오키나와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였음.
- 고용, 의료: 구직자 수(예: 와카야마 현 서비스업의 경우 구인 수는 많은데 구직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미스매칭 된 상황 파악, 반대로 사무라든가 운반 관련하여 구직자는 많지만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 파악 가능), 의료 수요 공급 데이터(어떤 병원의 환자 수와 입원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 지역 통계와 전국 통계 제공)
- 이 외에도 농업 관련 메뉴, 해외진출 기업 동향, 마을만들기나 지방재정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음(자료 32쪽 참고)
- 리사스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여러 가지로 늘리고,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으며, 브라우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음. 그 결과,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만 451만 뷰를 기록하였음.
- 리사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종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최근 3년 사이에 기존에 25개였던 것이 81개로 데이터 종류가 증가하였음.
- 또한 정기적으로 최신 데이터를 공개하며, 어떤 통계가 언제 갱신되었는지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함.
- 수록 데이터에 대한 결정은 경제산업성과 내각관방이 협의하여 내림.
- 리사스에서 제공되는 통계의 지역 단위는 통계별로 다름. 현 레벨까지만 제공되는 것도 있고, 시정촌 단위까지 제공되는 것도 있음.

2.3. RESAS 활용도 제고를 위한 내각관방 사업

- 내각관방에서는 리사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교육 등을 실시함.
 - 자료 34쪽에 리사스 온라인 강좌에 대한 설명이 있음. 온라인을 통해 리사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음.
- 리사스의 보급과 교육과 관련된 2017년 예산: 약 1억5천만엔
- 내각관방에서는 리사스 시스템과 관련한 주 업무는 시스템 보급임. 지자체로부터 의뢰가 있을 경우 사용방법 설명 워크숍을 개최함.
 - 워크숍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지자체 공무원이 참가 대상이고,

- 간혹 지역의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있음.
- 일반 국민들이 리사스를 이용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콘테스트를 열어서 표창하는 이벤트도 개최함.
 - 예를 들어 후쿠오카는 지역 특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이라든가 광고·선전, 상품 개발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표창한 경우가 있음(자료 20쪽 참고).
 - * 후쿠오카 시 직원이 분석한 결과 도매, 소매업, 연간 상품 판매액이 적었다는 것이 과제로 나타남. 상품 판매액이 낮은 이유를 5명 미만의 사업소가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찾음. 데이터에서 음식 관련 상품이 지역의 강점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식료품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을 세웠음. 식료품 판매를 관광 산업과 연계하려는 목적에서 이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오는지를 파악하였음. 그 결과 멀리 않은 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알았음. 또한 어업 관련 상품 매출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음. 관련 상품은 집에서 노점 식으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이렇듯 마을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식료품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전략 수립함.
 - * 이 밖에 고등학생들의 아이디어도 있었음. 경작되지 않는 버려진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테마를 애벌레 등 ‘곤충식’으로 잡았음. 곤충식 개발에 경작포기지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냈음. 이밖에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 등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음.
 - 또한 홋카이도에서 대학생들이 지역 특산물을 캔으로 만드는 상품개발하여 포상한 적이 있음.
- 리사스 데이터는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이를 활용한 어플을 만드는 것도 시상함.
 - 예를 들어 미야자키 현의 경우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의 구체적 정보를 모아놓았음(25쪽)
- 자료 6쪽~18쪽에 각 지자체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 * 전국 시정촌을 비롯하여 은행이나 각 지역의 상인단체에서도 리사스를 활용함. 그 밖에도 대학 수업 교재(통계학 수업)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음.
 - * 경제산업성은 매년 “리사스를 활용한 활용 사례집” 발간.
 - ※ 「지역 경제 분석 시스템 (RESAS) 활용 사례집 2017」 <http://www.meti.go.jp/press/2017/06/20170602005/20170602005.html>

2.4. 기타 RESAS 운영 관련 사항

- 경제산업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다른 부처 데이터, 민간 데이터 등을 표준

화하는 작업 또한 내각관방 RESAS팀이 아닌 경제산업성에서 실시함.

- 시스템의 운영은 주로 경제산업성에서 맡고 있고, 운영계획, 중장기 계획도 경제산업성이 갖고 있음.
- 내각관방에 리사스 관련 담당 인력은 10명 정도이며 주로 보급,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함. 일부 리사스 홈페이지를 더 알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발에 관여하는 인력도 있음.
 - 팀 구성원의 출신은 다양함. 독립 행정 법인 근무 경력자, 경제산업성 파견자, 민간기업 파견자 등이 있음.
- 리사스 시스템 관련 의사결정은 안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산업성과 내각관방이 상담·협의하여 결정함.
- 민간 데이터 구입 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여 데이터를 수집함. 자세한 분석이라든가 특정 지역에 대한 특정 데이터는 민간 데이터를 살 때 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게 됨. 이런 측면에서 예산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딜레마임.
-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똑같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 그러나 극히 일부만 시정촌에 한정된 메뉴가 있는데, 해당 지자체 내의 기업거래 관련 자료가 그러함.
 - 기업거래 자료 구입처는 제국 DATA BANK라는 민간 회사임.
 - 전국 시정촌이 모두 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이 데이터는 해당 시정촌의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음.
- 도도부현마다 리사스 담당을 하나씩 만들었으며, 이들이 현장에서 보급 활동을 하고 있음.
 - 담당자들은 데이터 수집은 전혀 하지 않고, 보급 업무만을 수행함.
-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리사스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정부는 PDCA(Plan Do Check Action)라고 하여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정책수립 효과 검증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함. 이 과정에서 리사스를 활용하도록 함.
 - 리사스를 사용할 경우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 실제로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행정적, 정책적 목표를 세울 때 리사스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자료를 만드는 식으로 활용함.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음.

3.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 지역부흥협력대 제도

※ 수집자료: 1) 히타치오타시 과소지역자립촉진계획(2016년~2020년)

2) 히타치오타시 지역부흥협력대 외부인재의 활용 설명자료

3.1. 히타치오타시 개요

- 2014년 12월에 기존에 있던 네 개 시정촌이 통합되어 히타치오타시가 되었음.
 - 특히 과소지역 관련해서는 가나사도 정, 스이후 촌, 사토미 촌 세 가지가 직접 관련이 되어 있음.
 - * 시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자료1의 16쪽까지 있음.
 - 특산물로는 소바, 포도가 유명함.
 - 일본 최대 높이의 번지점프대예가 있음. 1년에 3만 명 정도 방문함.
- 주로 교통 관련한 도로, 교육기관 시설을 짓는 데 재정을 사용하고 있음.
- 채권 중 70%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됨. 일반 지방채권에 비하면 유리한 입장으로, 시정촌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임.
 - ‘과소채’의 경우 금액이 작고 국가지원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음.
- 지방채 발행으로 의료 관련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음(자료 1 34쪽 진료소 병원 유지비에 인건비 포함). 개인병원 설립 시 재정지원을 하는 것임.
 - 자료1에 시 재정(채권) 사용 용도를 관광, 상공업, 생활환경정비(도로, 수도정비 등 인프라), 복지 정책, 의료, 교육(학교, 마을회관), 지역문화진흥(평생교육 관련), 집락정비·커뮤니티, 기타(교통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합승택시제도”를 도입하여 실시 중임. 합승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을 주로 담당함. 각 가정의 집 앞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임. 이러한 제도의 최종 목적은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임.
 - 대표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합승택시 제도이며, 이런 목적하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임.
 - 시 내에서 발달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된 지역도 같은 수준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 함.
 - 시에 택시회가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택시회사 두 곳이 함께 조합을 만들고, 시는 이 조합에 지원금을 줌.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비를 보조해 줌. 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할 경우 이용객이 많아져도 보조금이 늘지는 않게 됨. 이에 따라 이용자 수에 따라 조정하기도 함.

- 히타치오타시 인구는 감소추세이며, 인근 시정촌에서의 이주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한 달에 2만엔씩 3년까지 지원함. 양육가정의 경우 주택 구입 시 일시불로 20만엔을 보조해 줌.

<참고>

- 히타치오타시에서는 작은거점 사업을 하지 않음.
- 인터뷰 담당자는 RESAS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시 계획 수립 시 활용한 적은 없었다고 함. 단, 인구 관련 계획 수립을 민간업체에 맡기는데, 그 민간업체가 리사스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불확실

3.3. 지역부흥협력대 제도 개요 (자료2)

- 지역부흥협력대 제도는 개인 활동을 재정 지원하는 드문 형태의 특이한 제도임. 히타치오타시의 경우 2011년부터 시작하였음.
 - 국가 차원에서 개인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
- 주로 활동자(협력대원)는 도쿄 등 도시에서 농촌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임. 지방을 거점으로 삼아서 농업이라든가 지자체 관련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음.
- 활동기간은 1년~3년이며, 재정지원은 총무성에서 함.
- 도입 목적은 ① 지역 활력 향상, ② 지역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 ③ 인구 확대 도모임.

3.4. 히타치오타시 지역부흥협력대 제도 운영 관련 사항

- 협력대원 모집 단계, 이주 단계의 지원 제도
- 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 도쿄에서 협력대원들과 같이 가서 히타치오타시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함.
 - 올해 12월 10일 개최 예정
- 대원 채용 단계에서 희망자들에 한해서 이바라키현이 개최하는 이주 상담회에 참석하도록 함.

- 이 외에 현 담당자와 업무협약하는 부분은 없음.

- 시에서 대원이 거주할 빈집을 직접 제공함. 일반인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시에서 내줌.
- 협력대원 채용 관련 사항과 활동 단계의 지원 제도
- 히타치오타시 협력대원 채용 경쟁률은 매년 편차는 있으나 3:1 정도임. 대원을 상시 모집하고 그때그때 면접을 진행함.
 -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한 것은 10명이었고, 당시에 이 중에 2명을 채용했음.
 - 외국인도 대원이 될 수 있음.
 - * 영국인이 대원에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언어 문제로 인해 채용은 하지 않았음.
-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 인원을 정하며 통상 매년 10명 정도임.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은 설정해 둔 인원을 채우지 못했음.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만 채용하기 때문이며, 점차 다른 지자체에서도 협력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서 응모자가 분산되고 있음.
 - 히타치오타시는 응모자가 적은 편에 속함.
- 제도 실시 초기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성 참여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주자를 늘리기 위해 농업 관련 활동을 할 대원을 모집하고 있음. 협력대원 활동종료 후 이 지역에 이주·정주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촉진할 사람들을 대원으로 채용하려 함. 그 시도 중 하나가 농림업을 활용한 협력대원 채용임.
 - 농업 외 활동을 하는 협력대원의 경우 활동 종료 후 외부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향후 채용도 농업 쪽으로 할 계획임.
 - * 농정과와 공동의 사업은 없지만, 농업 관련하여 어떤 인원이 필요한지를 농림 부서에서 정함. 예를 들어 내년(2018년)에는 포도와 소바 관련 농업을 할 대원 모집 예정
 - * 모집 시 포도, 소바 관련 모집이라고 명시(과거에는 명시하지 않았음)
 - 시 차원에서 채용할 때 정착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려 하므로, 시 자체적으로 정착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운영함.
- 농업활동 대원에세 시에서 농장을 소개해 줌. 유기농업 관련 시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농가를 소개해 줌.
 - 해당 농장주에게 인센티브는 따로 없음. 농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느낌으로, 일손 부족을 메우는 느낌으로 고용함. 직접적인 인센티브나 재정지원은 없지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이니 긍정적인임.

- 총무성의 대원 1인당 연간 지원금 상한액은 400만엔인데, 400만엔 중 200만엔은 인건비로 사용됨. 그리고 활동비 명목의 보조금은 히타치오타시의 경우 1인당 연간 상한액을 80만엔으로 하고 있음. 활동비는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짐.
 - 예를 들어 전기톱처럼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활동비가 지급되나, 이주교류 업무와 같이 도구를 쓰지 않는 사무일에 대해서는 활동비가 잘 지급되지 않음.
 - 활동비 지급 판단은 시에서 함.
- 대원이 시에 고용된 형태는 아니므로 한 달에 160시간 정도 협력대원 활동을 하고 그 외 부업을 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음. 그러나 협력대원 활동과 관계가 전혀 없는, 가령 주말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협력대원과 시 담당자와 월 1회 정례미팅을 개최함.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적을 보고하고 향후 예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 대원 각자 활동 보고서를 매월 미팅 때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발표
 - * 활동이 지지부진한 경우 시에서 지원 종료 결정을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음.
 - 공공기관·시설에서 모임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음.

□ 과거 협력대원 활동 내용

- 2011년에 최초로 3명이 대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2012년에 2명이었음. 이들 다섯 명은 도쿄에 있는 여자대학을 졸업하였고 히타치오타시에서 대원들의 조직인 “루리에”(‘연결’이라는 의미)를 만들었음.
 - 이들이 활동을 시작한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협력대 활동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시기여서 목적이 확립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활동자 스스로가 직접 생각하고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찾아가는 활동부터 시작하였음.
 - 이 활동 중 하나가 “지역자원지도”였음. 지역의 맑은 물로 커피를 만드는 사토미 커피(지역커피) 사업을 구상하였음. 당시 개발한 사토미 커피는 지금도 판매 중임. 협력대원 출신이 창업하였음(자료1, 14쪽, 협동회사). 최초 회사 설립자는 사정상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음.
 - 또한 이 지역에서 옛날부터 먹던 음식의 요리의 레시피를 정리하여 메뉴화하는 활동을 하였음.

- 5명 가운데 4명이 활동기간 후에도 남아서 활동을 지속했음. 그 이후 지금까지 5-6년 된 사이에 결혼을 하거나 지역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지금 2명이 지역에 있음.
 - * 이중 한 명은 히타치오타시 관청의 직원이 되었고, 한 명은 근처 호텔의 종업원을 하고 있음. 둘 모두 히타치오타시 출신 남자와 결혼하였음.
 - * 협력대원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음. 처음 생각한 것과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할 일을 찾아서 나간 경우가 있음.
- (12쪽) 루리에 대원의 활동 내용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었고, 이러한 홍보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400만엔에 상당함.
- 2014년에는 아티스트 대원이 들어왔음. 예술적 감각을 살려 산의 낙엽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유치원의 미술활동을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이런 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어린이들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많이 쌓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 아티스트 대원은 인터뷰 당시에도 활동 중이었음.
- 지역에 유명한 큰 다리가 있는데 일본의 전통 축제인 “코이노보리”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이 행사에서 날릴 연을 만들 때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함. 또 다른 활동으로는 히타치오타시에 관한 내용을 그림책으로 제작하여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기증한 경우도 있었음.
 -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나, 대원이 활동 종료 후 지역을 떠나면 끝나는 경우가 많음. 단, 그림책 기증하기 활동은 아이디어가 좋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림책을 제작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 기증하고 있음.

□ 기타 인터뷰 내용

- 담당자 두 명은 각각 2015년과 올해부터 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음. 총무성이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부흥협력대 관련 교육연수에 참여한 경험은 없다고 함.
 - 총무성 교육은 처음 협력대 업무를 시작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추측하였음.
- 담당자들은 외부에서 온 협력대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역 출신 청년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음.
 - 오히려 협력대원 중 기존 주민에게서 도쿄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으로 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함.

- 협력대원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을 선호한다기보다 지역의 브랜드를 더 많이 봄. 향후 이주를 염두에 두는 대원들의 경우 인간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주한 사람이 많은 지역이 인기가 있는 듯함.
- 협력대원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은 지역에서 귀중한 시간 3년을 투자하는 것이므로 지자체는 사전에 잘 준비해서 상담도 하고 도와주려 함.
- 협력대원 제도는 독창적인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외부 사람을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발상을 찾는 것이 취지임. 그러므로 누구나 아트바이트 감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대원을 채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
 - 농업 분야 대원들의 경우 지역에서 어떤 농업을 하면 효율적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특히 후계자가 없는 농가를 잇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3.5. 히타치오타시 현 지역부흥협력대원의 활동과 생활에 관한 인터뷰 내용

□ 인터뷰에 참석한 지역부흥협력대원 명단

대원 성(姓)	응답 내용
타케무라①	농업(가지 재배), 가장 오래 활동한 대원(2년 3개월 활동)
타케무라②	산림조합에서 입업 관련 업무, 9월부터 활동
호리구치	농업(가지 재배)
츠카다	이주교류 관련 활동
타케이	농업(아채 재배), 7월부터 활동

※ 참고: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 지역부흥협력대 활동 사이트

<<https://www.facebook.com/hokyoryokutai/>>

※ 본래 농립업 종사 대원은 5명이었으나 한 명이 이번 달에 그만두고 현재 4명임. 그리고 시 차원에서, 외부의 새로운 독창적 아이디어로 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 대원이 1명임. 아티스트 대원 1명은 불참.

□ 히타치오타시에 오게 된 계기

대원 성(姓)	응답 내용
타케무라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원을 4년 했는데 농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속되어 결정 ▶ 주변 친구들은 왜 좋은 직장과 월급을 버리고 지역으로 가는냐는 반응 ▶ 농업 관련 대원을 모집하는 지자체를 찾다가 히타치오타시에 지원 ▶ 히타치오타시가 위치한 이바라키현의 열 현 출신이라 가까워서 선택한 것도 있음 ▶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데 그 외 활동도 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서 선택
타케무라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가타시 출신, 거리가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다는 지리적 이유로 결정 ▶ 대학에서 관광 전공을 했지만 농림이나 임업과 같은 1차산업에 본래 관심이 있었음 ▶ 2020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어서 관광산업이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에 젊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개인적인 정의감과 책임감을 느껴서 활동에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했음 ▶ 과거 직장인 도쿄역 근처에서 '이주교류방' 일을 지나가다가 협력대원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직접 응모할 때는 히타치오타시가 특히 1차산업(농업, 임업) 쪽에 중점을 두고 대원을 채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고 지원하였음
호리구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오카의 100만 명이 사는 대도시 출신 ▶ 오키나와에서 다이빙 강사를 하였는데 처가가 이 근처치고 우연히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지원
츠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타치오타시 안에 카나사호 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을 알게 됐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원 ▶ 이 지역 사례가 TV나 인터넷에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알게 됨
타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바라키 현에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그나마 이 지역에 친근감이 있었음 ▶ 인터넷 등에 협력대원 제도가 많이 소개된 것을 보고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를 보다가 히타치오타시의 협력대원의 경우 실적이 있었고 대원들에 대한 지원도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선택 ▶ 지역 선택 시 도쿄 북쪽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 이유도 영향

□ 히타치오타시에 협력대원으로 하고 있는 활동

대원 성(姓)	응답 내용
타케무라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민박업도 하고 있음 ▶ 굉장히 깨끗한 빈집을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음 ▶ 기존 농사 경험은 없었음 ▶ 겨울 농한기에는 내년 농사를 준비
타케무라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 활동을 함. ▶ 잔디 깎기와 전기톱 사용 강습을 받았고, 지금은 잔디를 깎는대신 전기톱으로 나무를 벨 때 보조하는 역할을 함. 9월부터 대원 일을 시작하여 아직 혼자 일을 하지는 못함
호리구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농장에서 일하고 있음(타케무라①과 같은 농장) ▶ 기존 농사 경험은 없었음
츠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교류 관련 크게 두 가지 일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역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지리가 어떤 것이 있고 집은 어떻게 구하는지, 생활조건은 어떠한지 상담 - 시에 대한 홍보(활동 거점을 어디에 둘지 모색 단계. 처음에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 활동을 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 중) ▶ 동네 전체가 활동 구역임. 필요 시 각 지구의 지소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봄 ▶ 메인 직업은 카메라맨이며 이것을 지속하면서 협력대 경험을 살려서 개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발전시킬 계획
타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밭을 밀려서 혼자 농장을 일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은 아니고 작은 면적에서 혼자 농사 ▶ 처음에 왔을 때 연수할 수 있는 농장을 시에서 소개해줬고 농장에서 일을 많이 배웠음 ▶ 농대 출신으로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였고 농사 경험 있었음 ▶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라서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결혼 전인데, 농업이 힘이 많이 드는 육체노동이 다 보니 혼자서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 농업 관련 일을 계속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할지는 고민 중임. 가공품이나 사토미 커피 관련한 가공업을 같이해보자는 이야기도 주변에 있어서 생각 중

□ 거주지 환경과 농촌에서의 생활

- 대원 모두 (시내가 아닌) 마을에 거주.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원들 모두 자동차를 갖고 생활

대원 성(姓)	응답 내용
타케무라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에서 사는 것이 편하지만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하니 큰 문제는 아님(도시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고역) ▶ 임금이 낮아진다는 것은 각오하고 있음. 200만엔으로만 생활하려면 부족함. 저축이 불가능 ▶ 농촌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가스비(프로판)가 너무 비쌌 ▶ 특별히 갈등이 생긴 적은 없음. 사람 나름. 다만 대원 중에는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해서 상당한 경우가 있음
타케무라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곽에 살고 있지만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됨 ▶ 가족,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외롭기는 함 ▶ 협력대원이라고 하면 벽을 두고 대하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지역주민과 교류가 많지 않음
호리구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원(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둘이 있음.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있음. ▶ 가족들이 다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함. 금전적으로는 조금 빠듯하지만 가족과 대화가 많고 웃을 일도 많고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 ▶ 생각보다 지역주민이 친절. 후쿠오카 출신인데 관동지역이 사람들이 차갑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생활해 보니 친절해서 좋았음. 고향 후쿠오카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상의 것을 느낌
츠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여기에 왔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인간관계에 감동하였음 ▶ 오늘날 해도 이 회의에 참석하느라 옆집 아주머니가 아기 예방접종을 해주려 줌
타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때부터 혼자 지내서 익숙. 단독주택에 혼자 살지만 부지 안에 있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 다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음 ▶ 다만 항상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음.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 뭐 했지"라고 말할 때마다 놀람 ▶ 주변에 대화가 통하는 같은 세대의 친구들이 없어서 조금 외로움

□ 행정에 대한 불만사항 또는 어려운 점, 바라는 점

대원 성(姓)	응답 내용
타케무라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은 개선이 되었는데, 활동 대원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사전에 알려줬으면 함. ▶ 본인이 처음에 지원할 때는 농업 관련 대원이라는 것만 알았고,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는 어떤 품목의 일을 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음 ▶ 농업이라고 해도 채소 농사인지 벼 농사인지도 몰랐고 오고 나서야 내가 가지농사를 하게 되는구나 하고 알았음
타케무라②	-
호리구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도 타케무라①처럼 가지농사를 짓는지 외서야 알았음. 원래 꿈은 사과(아오모리) 농사를 짓는 것이었는데, 그나마 가지농사가 이것과 비슷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벼 농사나 파 농장이었다면 그만두었을 것 ▶ '지역부흥협력대'라는 말을 들으면 일본 사람들은 농사를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생각하지 못함. 히타치오타시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제도의 목적이나 의도를 TV등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츠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받는 활동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봄. 공무원 예산 집행 방식으로 쓰다 보니 제한이 많음.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고 집행하고 하는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더 단순화했으면 좋겠음
타케이	-

4. 도쿄 소재 안테나숍

4.1. 일본 지자체의 안테나숍 개요)

- 일본 지자체는 지역의 특산품, 먹거리, 가공품 등을 도시에 적극적으로 판매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을 가지고 대도시 중심가에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가 지역자원의 매력을 어필하는 장소로 활용되어 판매뿐 아니라 지역·관광 홍보가 이뤄지며 이벤트가 개최되기도 함.
- 인테나숍 출점 이전에도 지역PR과 특산품 판매 매장이 있었으나 소규모였음. 그러나 1994년에 오키나와현의 긴자 와시타숍과 긴자 구마모토관, 1995년에 가고시마 유라쿠관이 성공하며 다른 지자체의 대규모 독립점포형 매장이 증가함.
- 지역활성화센터에서 도쿄도 내 2015년 일본 자치단체의 안테나숍 운영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점포수는 55개였음. 이 가운데 도도부현 점포 수는 42개임. 대다수가 추오구와 치요다구에 많이 위치함.

<일본 안테나숍 조사시점별 출점 현황>

조사년도	도도부현	시정촌	계
2008	30	6	36
2009	33	10	43
2010	35	14	49
2011	37	16	53
2012	34	20	54
2013	38	16	54
2014	39	13	52
2015	42	13	55

자료: "2015년도 일본 자치단체의 안테나숍 운영현황 분석" p.3

- 안테나숍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1억엔(약 10억원)을 넘는 점포가 29개였으며 50%의 숭에는 식당시설이 있었고, 외국어 안내책자 설치 숭이 점차 증가함(2015년 조사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고 민간기업이나 NPO에 위탁(24개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제3섹터, 재단, JA 등에 위탁(12개소)하거나 지

1) 참고: "2015년도 일본 자치단체의 안테나숍 운영현황 분석"
<http://www.gaok.or.kr/gaok/bbs/B0000026/view.do?nttId=7450&menuNo=200038> (최종접속일: 2017. 12. 8.)

방자치단체와 기타 단체의 공동운영(9개소)하는 곳도 있음.

4.2. 긴자거리 일부 안테나숍 일부 방문 결과2)

- 도쿄 츄오구에는 일본 각지의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안테나숍이 있음.
 - 이 가운데 구마모토현 안테나숍(긴자 구마모토관), 나가노현 안테나숍(긴자 NAGANO), 군마현 안테나숍(군마 종합정보센터), 이와테현 안테나숍(이와테 긴자 플라자)를 방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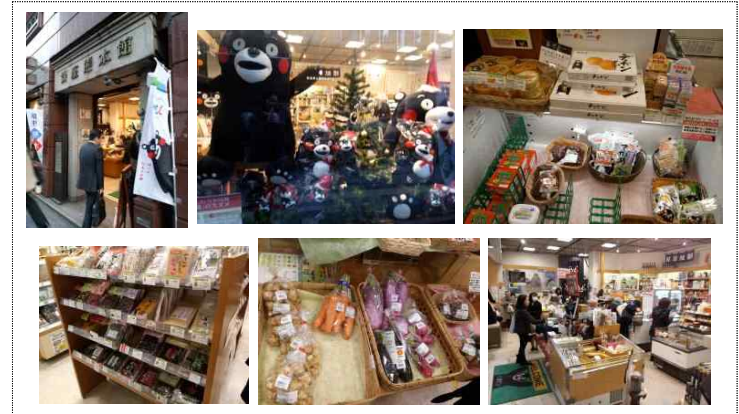
<도쿄 츄오구 위치 안테나숍>

지역 구분	안테나숍명
홋카이도·도호쿠 지역	홋카이도 푸디스트
	하코다테 뭇테키마시타 (하코다테 가져왔습니다)
	아오모리현 특산품센터
	<u>이와테 긴자(은하) 플라자</u>
	맛있는 야마가타 플라자
간토·주부 지역	니혼바시 후쿠시마관 MIDETTE
	이바라키 마르쎬
	<u>군마 종합정보센터(군마정치)</u>
	브릿지 니가타
	니혼바시 도야마관
	이시카와 백만석이야기 에도 본점
	dining gallery 긴자의 가나자와
맛의 고장 후쿠이관	
간사이 지역	후지노쿠니 야마나시관
	<u>긴자 NAGANO - 행복 신슈 공유 공간</u>
	미에 테라스
	나라 마호로바관
주오쿠·시코쿠 지역	교토관
	니혼바시 시마네관
	히로시마 브랜드숍 TAU
	오이데마세 야마구치관
규슈·오키나와 지역	마루고토 고치
	니혼바시 나가사키관
	자라이 오이타
	<u>긴자 구마모토관</u>
	긴자 와시타 슝 본점

자료: 도쿄 츄오구 관광가이드 홈페이지.

▶ 구마모토현(긴자 구마모토관)

- 구마모토현의 캐릭터를 내세워서 상점을 꾸미고 수많은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음. 관광 팸플릿도 비치하여 둠.
 - 1층에서는 신선채소, 과일, 향토과자와 농수축산물 가공품, 구마소주 등을 판매함.
 - 2층의 'ASOBI Bar'에는 구마모토의 향토요리, 제철채소, 80종류 이상의 구마모토 명물안주가 준비되어 있음.
- 또한 구마모토 이주상담회를 개최하며 긴자 구모모토관 제철관 소식을 발행하고 있음.
 - 2017년 11월 이주상담회는 온천 특집으로 개최되었으며 10월에는 이주상담회와 함께 구마모토 이주패어를 개최하였음. 내용은 선배 이주자의 세미나, 개별 상담회, 취업 상담, 기업 상담 등임. 9월에는 구마모토 농업이 주제였으며 현의 일부 지자체가 참가하였음.
 - 이주상담회는 구마모토현과 NPO법인인 고향회귀지원센터가 함께 개최함.
- 1994년에 오픈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평일임에도 매장 내 사람이 아주 많은 편으로 활발히 운영되는 모습임.



2) 참고: 일본 츄오구 관광가이드 홈페이지 내 안테나숍 소개 페이지 https://centraltokyo-tourism.com/ko/topics/antenna_shop (최종접속일: 2017.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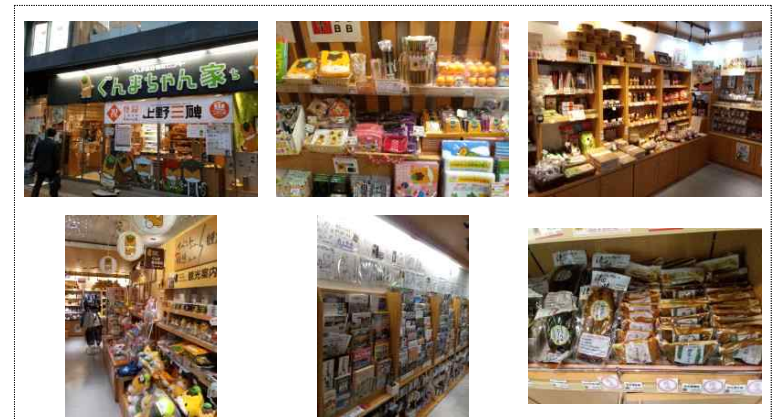
▶ 나가노현(긴자 NAGANO ~ 행복 신슈 공유 공간)

- 2014년에 오픈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점포를 꾸몄음. 건강장수를 육성하는 향토 음식을 비롯하여 나가노 와인이나 일본 청주 등을 계절 테마에 따라 구비함. 카운터에서는 계절 식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기도 함.
 - 구비 상품은 신슈 술, 농산물·과즙음료, 축산·수상 가공품, 스위트·유제품, 신슈 향토음식, 신슈의 가공식품, 전통 공예품 등임.
- 긴자 나가노 안테나숍의 홈페이지에서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 정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온라인 쇼핑몰인 ‘나가노 마르쉐’로도 이동할 수 있게 함. 블로그 형식으로 안테나숍의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함.
- 1층은 쇼핑 공간과 잔으로 맥주, 와인, 사케 등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층에는 체험 등 이벤트 공간과 나가노현 홍보관(관광 정보 코너)이 마련되어 있음. 4층은 co-working 공간과 이주 교류·취업 상담 코너로 운영됨.
 - 4층 공간은 나가노현의 기업과 나가노현 관련 비즈니스 매칭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주 및 취업 상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또한 상점이나 사업소 소유를 목표로 하는 사람을 위한 나가노현 후계자뱅크도 운영함.



▶ 군마현 안테나숍(군마 종합정보센터/군마짱치)

- 군마현의 채소, 특산품과 현 마스코트인 군마짱 관련 상품이 많이 구비되어 있음. 다른 지역의 안테나숍에 비해 관광안내,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층은 이벤트 공간으로, 군마현 각 시정촌이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개최함.
 - 한 예로 군마현 직원 취업 상담회에서 군마현 직원, 경찰 업무, 채용 시험 관련 의문·고민에 대해 차를 마시면서 현 직원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



▶ 이와테현(이와테 긴가 플라자)³⁾

- 1998년에 오픈한 이와테 긴가(은하) 플라자는 500㎡ 이상의 대형 점포로 식품이나 공예품 등 1,800종류 이상의 상품이 구비되어 있음.
- 대형 점포에 여러 코너와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음.
 - 소프트 아이스크림 코너를 비롯하여, 메부키야(경단, 떡, 화과자 등), 면류·조미료·해조, 냉장식품, 음료·유제품, 냉동식품, 토속주·고장 맥주·와인, 이와야도 서랍장, 고이와이(고이와이 농장의 버터, 요구르트, 과자 등), 젤리(신상품, 처음 등장한 상품 진열), 공예품, 서적·DVD·CD(이와테 출판·이와테 관련 서적 등), 도시락, 과자, 채소, 이벤트(이벤트 개최와 이와테의 단체·기업이 몰산이나 관광정보 발신) 코너를 갖춤.
 - 소프트 아이스크림 코너의 경우 이와테현의 인기 브랜드 농장인 고이와이 농장의 우유를 활용한 것임. 가격도 합리적이고 맛도 깊고 진해 이용객이 많은 편임. 아이스크림 코너에 농장 홍보 영상을 계속 송출하고 있음.
- 통역·번역 서비스로서 외국인 손님이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각 계산대에 통역 태블릿을 설치해 두고 있음. 원터치로 통역원과 연결되어 손님의 쇼핑을 서포트하는 영상통신 통역 서비스임.
 - 전문 통역 스태프와 화면을 보고 대화할 수 있음.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기타 출장 사진>



<총무성 방문 논의 모습>

<내각관방 방문 논의 모습>

<히타치오타시 방문 논의 모습>

<히타치오타시 "사토미 커피">

<히타치오타시 단체사진>

3) 참고: 이와테긴프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iwate-ginpla.net/language/ko.html> (최종접속일: 2017. 12. 8.).